



Week 8 강의

Event Sourcing — 캐시 너머의 설계

상태 vs 이벤트 · 2026-07-25

통장 = 거래의 합 

✕ QUEST 왜 이 주제인가

- W7 Redis = 상태 캐시. 그 너머 패턴을 본다
- 면접 단골 (CQRS / Event Sourcing 들어보셨나?)
- 은행·소셜·고프로 도메인의 핵심 설계
- 오늘은 개념 + 언제 쓰나 + 안 써도 OK 까지

"캐시는 현재 상태 의 사본. Event Sourcing 은 과거 모두 의 기록."

오늘 다룰 것

1. 비유 — 통장 vs 잔액
2. 상태 저장 vs 이벤트 저장
3. CQRS — 읽기와 쓰기 분리
4.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
5. 도메인에서 + 이력서에서

시작 전 - 용어 카드

용어	한 줄 정의
Event Sourcing	현재 상태가 아닌 이벤트 흐름을 저장
CQRS	쓰기(Command)와 읽기(Query) 책임 분리
Read Model	읽기 전용으로 최적화된 별도 DB / 캐시
이벤트 발행	도메인 변경을 신호로 알림 (Spring @Async)
이벤트 버스	이벤트를 전달하는 인프라 (Kafka 등)

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 표 다시.

× QUEST Part 1 — 통장 비유



[상태] "현재 잔액: 50,000 원" — 과거 X
[이벤트] 거래 _전부_ 기록 — 잔액은 _합산_

은행 = 거래 기록 이 진실, 잔액은 계산.

같은 좋아요 — 두 모델

[상태 모델]

Post(id, likeCount=42)

→ UPDATE Post SET likeCount=43

[이벤트 모델]

LikeEvent(postId, userId, action='LIKE', at=...)

LikeEvent(postId, userId, action='UNLIKE', at=...)

→ INSERT 만 (UPDATE/DELETE 없음)

→ 좋아요 _수_ = 이벤트 합산

한쪽은 현재 만, 한쪽은 역사 모두.

왜 그래야만 하는가 - 4 동기

#	동기	핵심
1	Write 가 무거움	UPDATE = 인덱스+락+Tx · INSERT 가벼움
2	Read >> Write	보통 100:1 ~ 1000:1 — read model 분리
3	비동기 반영 OK	좋아요·통계 0.5초 지연 사용자 영향 X
4	MSA 이벤트 전파	Kafka 1발행 → N서비스 소비

4 중 2 개+ 해당하면 ES 도입 진지하게 검토.

✕ QUEST Part 2 – ES 의 효과

- ✓ 감사 (Audit) –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_전부_
- ✓ 시간 여행 – 임의 시점 상태 복원 가능
- ✓ 디버깅 – _재현_ 항상 가능
- ✓ 분석 – 행동 패턴 무한 분석
- ✓ 재처리 – 버그 발견 시 이벤트 재처리

- ✕ 저장 공간 ↑↑
- ✕ 조회 _계산_ 필요 (또는 별도 read model)
- ✕ 학습 곡선 ↑

CQRS — 함께 쓰이는 패턴

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

명령 쿼리 책임 분리

[Command 측]

이벤트 저장

↓

Event Store

— 비동기

[Query 측]

read model

↑

읽기 전용 DB

(캐시·검색·통계)

쓰기 = 이벤트 1줄, 읽기 = 최적화된 *read model*.

적용 사례

은행 거래

- 입출금 = 이벤트
- 잔액 = read model
- 감사 의무 → ES 거의 필수

e-commerce 주문

- 주문/배송/결제 = 이벤트
- 주문 상태 = read model
- 분쟁 시 시간순 재현

적용 사례 (계속)

■ 소셜 네트워크

- 좋아요/댓글 = 이벤트
- 알림 / 통계 / 추천 = read model 다수

🚗 IoT / 위치 추적

- GPS pin = 이벤트
- 현재 위치 / 경로 = read model

언제 안 쓰나

- ✗ CRUD 가 충분한 단순 도메인 (게시판)
- ✗ 트래픽 작은 서비스 (오버 엔지니어링)
- ✗ 팀 _학습 곡선_ 부담 큰 시점
- ✗ 즉시 일관성 _절대_ 필요한 도메인

- ✓ 감사 의무 있는 도메인
- ✓ "왜 이렇게 됐지?" 자주 물음
- ✓ 분석·추천 read model 다수
- ✓ 팀이 _이벤트 사고_ 익숙

× QUEST Part 3 - 부분 도입

전체 ES 부담스러우면 **이벤트 발행** 만 도입.

주문 생성:

1. Order INSERT (= state)
2. OrderCreated 이벤트 발행 (= event)

이벤트 구독자:

- 알림 서비스
- 통계 서비스
- 추천 시스템

부분 도입. 캐시·알림·통계 **분리** 만으로도 큰 효과.

Spring 으로 시작하기

```
record OrderCreated(Long orderId, ...) {}

// 발행
publisher.publishEvent(new OrderCreated(...));

// 구독
@EventListener @Async
public void handle(OrderCreated e) {
    notification.send(...);
}
```

외부 큐 (Kafka) 없이도 개념 도입 가능.

Kafka 같은 이벤트 버스 까지 가면

Producer (서비스 A) → Kafka topic



- └─ Consumer 1 (알림)
- └─ Consumer 2 (통계)
- └─ Consumer 3 (감사 로그)

- ✓ 서비스 _독립_
- ✓ 새 구독자 _쉽게_ 추가
- ✓ 장애 _격리_ (한 구독자 죽어도 OK)
- ✗ 운영 복잡도 ↑↑

실무에서 — ES 자리

도메인	ES 적합도	이유
은행 거래	★★★★★	감사 + 재현 필수
e-commerce 주문	★★★★	분쟁 + 분석
소셜 좋아요	★★★	분석 + 추천
게시판 글	★★	단순 CRUD 충분
정적 콘텐츠	★	거의 X

별 5 개 도메인이 아니면 이벤트 발행 만 부분 도입.

이력서엔 — Event Sourcing 카드

[주문 도메인 이벤트 발행으로 알림·통계 분리]

P (문제) 주문 처리 응답 1.2s — 알림·통계가 동기 호출

O (옵션) 비동기 / 큐 / 이벤트 발행

D (결정) Spring 이벤트 + @Async — 운영 복잡도 ↓

A (행동) OrderCreated 이벤트 + 3 구독자 분리

R (결과) 응답 1.2s → 200ms (-83%), 알림·통계 장애 격리

AI 잘 쓰는 법

- **잘하는 것:** ES / CQRS 패턴 설명, 도메인 적합도 분석
- **자주 hallucinate:** 운영 복잡도 과소평가, 한국 회사 사례 추측
- **검증 루프:**
 1. AI 답에 도입 비용 까지 묻기
 2. 본인 도메인 감사 의무 확인
 3. POC 작은 범위로
 4. evidence 에 부분 도입 결과

그럼 미션은?

- W8 미션 `09-week8-ai-native` = AI 네이티브 워크플로우 (이 강의 주제 X)
- 단, 6 공통 필수 기능 중 비동기 / 이벤트 영역과 직결
- 팀 프로젝트 (W9) 에서 이벤트 발행 1 건 도입 가능

막히면 → `{cohort}`- 질문 채널 + 오피스아워 (화·목 21:00)

질문 ㄱㄱ ?

이번 주 = "내 도메인은 _상태_ 인가 _이벤트_ 인가"
다음 면접 = "Event Sourcing 들어보셨나?" 답할 수 있게

격주 강의 끝 - Week 9 부터 팀 프로젝트.